

## 葉夢得 《石林詩話》의 詩論\*

이 치 수\*\*

<目次>

I. 들어가는 말	3. 詩歌 創作論
II. 《石林詩話》의 主要 詩論	4. 詩歌 批評論
1. 詩歌 本質論	III. 나가는 말
2. 詩歌 表現論	

### I. 들어가는 말

중국의 고전시가는 唐代에 이르러 황금 시기를 구가하였으며, 뒤를 이은 宋代의 詩는 또 그와는 다른 나름대로의 성취를 거두었다고 보는 것이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평이다. 송대의 시인들이 이런 성취를 거두게 된 데는 당시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시 세계를 추구한 노력이 돋보이지만, 이와 더불어 시 짓기와 관련된 이론적인 방면에서의 탐구와 성취도 가벼이 볼 수 없다. 송대의 시인들은 시가 창작에 있어서 4만 2천 여수의 唐詩보다 5배가량 많은 20여 만 수를 지어 수량상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詩話’라고 하는 시 담론 서적을 짓기 시작했는데, 郭紹虞의 《宋詩話考》에 의하면 송대의 시화는 현재 전해오는 것만 쳐도 42종에 이른다.<sup>1)</sup> 이처럼 송대에는 많은 詩話가 등장하면서 시와 관련하여 다양한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郭紹虞, 《宋詩話考》, 學海出版社, 1980.9, 目錄 1-2쪽, 序 참조.

논의가 행해졌다. 특히 1998년에 출간된 吳文治 主編의 《宋詩話全編》에는 송대의 562명의 시에 대한 談論을 실고 있다. 詩話를 비롯하여 시를 논한 이렇게 많은 글 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葉夢得的 《石林詩話》이다. 葉夢得(1077~1148)은 字가 少蘊이며, 蘇州 長洲(지금의 蘇州市) 사람이다. 紹聖 4年(1097) 21살에 進士 及第한 이후, 翰林學士、吏部尚書、江東安撫大使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만년에 湖州 卞山(弁山) 石林谷에 은거하여 號를 石林居士라 하였다. 紹興 18年(1148) 卞山에서 향년 72세로 세상을 떠났다. 저작에 《石林詩話》 외에도 《春秋傳》、《石林燕語》、《避暑錄話》、《玉澗雜書》、《石林詞》 등이 있다.

송대가 중국 고전문학 비평사에서 中興의 시기로 평가받는 것은 ‘詩話’라는 새로운 批評 樣式을 통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南北宋 交叉 시기의 詩學의 動向과 특색을 알아보는 데에 주목할 만한 端緒를 제공해주는 葉夢得的 《石林詩話》의 특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송대의 시화는 저작 연대의 先後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여, 초기에는 시나 시인에 관한 逸話에 대한 기록이 많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점차 전문적인 이론을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sup>2)</sup> 그러면 송대의 주요 시화 중의 하나로 꼽히는 《石林詩話》의 경우는 과연 어떠한가?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sup>3)</sup> 다소 간략한 감이 없지 않으며, 좀 더 전문적이고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石林詩話》에도 시인의 일화에 관한 기술이 적지 않지만, 본고에서는 전문적인 이론을 다룬 부분에 주목하여, 葉夢得的 詩論을 대체로 詩歌 本質論, 表現論, 創作論, 그리고 批評論 등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그의 시론의 주요 내용을 살피고, 아울러 이를

2) 顧易生·蔣凡·劉明今, 《宋金元文學批評史》(下), 上海古籍出版社, 1996.6, 475쪽.

3) 이를테면 黃寶華·文師華 共著의 《中國詩學史》(宋金元卷)(鷺江出版社, 2002.9)는 《石林詩話》를 평하면서 宋代 詩話가 한걸음 더 理論化로 나아가는 趨勢를 대표한다고 말했다.(305쪽)

통하여 송대를 살았던 비평가 葉夢得의 주요 관심사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 II. 《石林詩話》의 主要 詩論

### 1. 詩歌 本質論

詩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와 관련하여 葉夢得은 《玉澗雜書》에서 “시는 본래 사물에 접촉하여 감흥을 갖들이고, 性情을 읊조리는 것이다.”라고 하였다.<sup>4)</sup> 즉 이런 觸景生情, 遇景詠情의 관점에서 葉夢得은 《石林詩話》에서 謝靈運의 유명한 詩句 “池塘生春草, 園柳變鳴禽”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연못에 봄풀 돋아나고, 정원의 버들엔 지저귀는 새 소리 바꾸었네.(池塘生春草, 園柳變鳴禽)”라는 詩句가 있는데, 세상에는 이 구절의 뛰어난 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대체로 奇異함으로 이 구절의 특색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의 뛰어난 점은 바로 의도적으로 지으려는 뜻이 없이, 갑자기 경물과 만나 느낀 바를 시로 나타내되, 고치고 다듬는 것을 빌리지 않은 데에 있으며, 그래서 보통의 감정으로는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인의 뛰어난 표현은 마땅히 이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데, 苦心스레 생각하면서 쉽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왕왕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sup>5)</sup>

우선, 葉夢得은 세상 사람들이 謝靈運의 이 시구의 뛰어난 점을 제대로

4) “詩本觸物寓興, 吟詠性情.” 吳文治 主編, 《宋詩話全編》 卷3, 鳳凰出版社, 2006.10, 2726쪽.

5) 遼銘昕, 《石林詩話校注》, 人民文學出版社, 2011.11, 137쪽. “池塘生春草, 園柳變鳴禽”, 世多不解此語爲工, 蓋欲以奇求之耳. 此語之工, 正在無所用意, 猝然與景相遇, 借以成章, 不假繩削, 故非常情所能到. 詩家妙處, 當須以此爲根本, 而思苦言難者, 往往不悟.

알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시는 사전에 미리 어떤 준비된 마음 없이 문득 경물과 만나는 순간에 느끼는 바를 자연스럽게 글로 나타내는 것일 따름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이와 관련하여 鍾嶸이 《詩品》에서 한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였다.

鍾嶸의 《詩品》에서 이것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논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날이나 지금의 뛰어난 말들은 대부분 典故를 빌려서 文采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모두 직접 경물들과 접하며 詩情을 찾아 나타낸 것이다.”<sup>6)</sup>

鍾嶸이 이른바 “직접 경물들과 접하며 詩情을 찾아 나타낸 것이다.”는 말은 앞에서 葉夢得이 말한 “갑자기 경물과 만나 느낀 바를 시로 나타낸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葉夢得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黃庭堅의 시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葉夢得은 황정견이 일찍이 “말이 마른 콩 각지 씹는 소리가 대낮의 꿈을 시끄럽게 하니, 비바람에 파도가 강을 뒤집는 줄 잘못 알고 놀랐네.(馬齷枯其喧午夢, 誤驚風雨浪翻江)”(<六月十七日晝寢>)라는 구절을 짓고 스스로 홀륭하다고 여긴 것에 대해 처음에는 ‘비바람에 강이 뒤집어진다’는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뒤에, 하루는 여관에서 쉬고 있는데 옆집에서 파도소리와 북소리가 들리며 마치 風浪이 배를 때리며 지나가는 것 같아 일어나서 살펴보니, 말이 구유에서 먹이를 먹는데, 물과 풀이 구유 안에서 서로 부딪치면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葉夢得은 이와 관련하여, 황정견이 기이한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이 또한 의도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마침 그런 상황을 만나 이런 시를 짓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sup>7)</sup> 즉 기이한 표현을 좋아한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 그런 상황을

6) 같은 책, 137-138쪽. 鍾嶸詩品論之最詳, 其略云: “.....古今勝語, 多非補假, 皆由直尋.”

7) 같은 책, 33-34쪽. 然此亦非可以意索, 適相遇而得之也.

만나 경험을 하여야 비로소 그러한 시구를 지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상에서는 황정건이 奇異한 표현을 일부러 찾는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葉夢得은 생활 속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시로 나타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詩壇에 존재하는 ‘好奇’의 경향에 대해 警戒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생각에 의거하여 葉夢得은 근세의 僧侶들이 시를 지움에 自得함이 없이 왕왕 士大夫들의 시를 모방하는 경향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sup>8)</sup> 葉夢得은 시인이 주변의 경물을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살피고 경물의 특색을 파악한 뒤, 경물을 보고 느낀 자신의 감정과 경물의 모습을 시로 나타낼 것을 강조했다.

## 2. 詩歌 表現論

葉夢得은 시가의 표현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詩語란 모름지기 시인의 뜻과 하나가 되고, 시인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우선시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王安石의 晩年の 시에 대해, “뜻이 말과 어우러지고, 말이 뜻을 따라 구사된다.(意與言會, 言隨意遣)”라고 높이 평가했다. 葉夢得은 송대의 당시 사람들이 “시인의 뜻이 경물과 어우러져(意與境會) 말이 법도에 맞으며 凡常한 글자도 모두 쓸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叱咤했다.<sup>9)</sup> 葉夢得은 ‘意與境會’를 강조했는데 이것은 蘇軾의 ‘境與意會’와 같은 생각이다.<sup>10)</sup>

葉夢得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은 餘韻이 있는 함축적인 표현과 자연스러운 표현을 중시했다. “七言詩는 氣象이 雄渾하고 구절 안에

8) 같은 책, 135쪽. 近世僧學詩者極多, 皆無超然自得之氣, 往往反拾掇摹倣士大夫所殘棄.

9) 같은 책, 104쪽. 今人……不知意與境會, 言中其節, 凡字皆可用也.

10) 蘇軾은 陶淵明의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를 따노라니, 유연히 남산이 눈에 들어온다.(采菊東籬下, 悠然見南山)”는 시구에 대해, “국화를 따다가 산이 눈에 들어와, 경물이 뜻과 어우러지니, 이 구절이 가장 오묘함이 있다.(因採菊而見山, 境與意會, 此句最有妙處)”고 찬사를 보냈다.(蘇軾, 《東坡題跋》 卷2 <題淵明飲酒詩後>. 吳文治, 앞의 책, 卷1, 786쪽.)

힘이 있으면서, 완곡하되 말 밖의 뜻(言外之意)을 잃지 않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하고, 韓愈는 筆力이 가장 걸출하지만 언제나 뜻과 말이 모두 다 드러나 버리는 것을 유감으로 여겼다.<sup>11)</sup>

葉夢得은 餘韻이 있는 시에는 깊은 맛, 즉 ‘詩味’가 있다고 여겼다. 蘇洵의 시를 평하면서 “소순은 시가 많이 보이진 않지만 精深하고 맛이 있으며(有味) 말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sup>12)</sup> 여기에서 葉夢得은 소순의 시를 평하면서 ‘有味’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北宋의 神宗, 哲宗, 徽宗 시기에 활동한 魏泰도 《臨漢隱居詩話》에서 葉夢得과 마찬가지로 시에는 ‘餘味’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詩라는 것은 事情을 기술하면서 감정을 기탁하는데, 事情은 상세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정은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어, 느낌이 마음에 모여들면 情이 말로 나타나게 되니, 이리하여 읽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사로잡게 된다. 만약 왕성한 기세로 直述해버려 더 이상 餘味が 없게 되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알게 된다.<sup>13)</sup>(제16조)

위태는 ‘餘味’가 있는 시구들은 그 공통점이 시인이 경물과 접촉하여 감정이 생겨나고[觸景生情] 감정과 경물이 서로 융합하여[情景交融]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가운데서 무궁한 맛이 생겨난다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sup>14)</sup> 葉夢得은 ‘詩味’와 관련하여 또 말하길, 詩란 시인이 사물과 접촉하며 일어나는 감흥을 깃들여 性情을 읊조리며, 단지 가슴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어 적으면 훌륭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

11) 遼銘昕, 앞의 책, 172쪽. 七言難於氣象雄渾, 句中有力, 而紆餘不失言外之意. ... 韓退之筆力最爲傑出, 然每苦意與語俱盡.

12) 같은 책, 159쪽. 明允詩不多見, 然精深有味, 語不徒發.

13) 魏泰, 《臨漢隱居詩話》: 詩者述事以寄情, 事貴詳, 情貴隱, 及乎感會于心, 則情見于詞, 此所以入人深也. 如將盛氣直述, 更無餘味, 則感人也淺.(吳文治, 앞의 책, 卷2, 1211쪽.)

14) 李致洙, <魏泰 《臨漢隱居詩話》의 詩論과 北宋 詩學의 趨向>, 《中國語文論叢》 第40輯, 2009, 108쪽 참조.

들은 시의 組織과 彫琢에 힘을 기울여 말은 비록 빼어나지만 淡淡하니 맛이 없으며 시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비판했다.<sup>15)</sup> 송대에 들어 ‘詩의 味’를 따지는 논의가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제기되었는데, 《石林詩話》에서도 ‘詩味說’에 대한 葉夢得의 관심과 견해를 엿볼 수 있음은 상당히 흥미롭다.

葉夢得은 또 자연스러운 표현을 중시했다. 葉夢得이 杜甫의 시를 높이 평가하는 것도 바로 이 점에 있다. 두보는 시를 지음에 “홀로 편안하게 한 가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와서 조금도 힘들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sup>16)</sup> 그리고 王安石의 晩年詩에 대해, “전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牽強附會하고 늘어놓는 곳이 거의 보이지 않는(渾然天成, 殆不見有牽率排比處)” 특색을 높이 평가하였다. ‘자연스러운 표현’을 중시하는 葉夢得의 말은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당시 江西詩派가 성행하면서 黃庭堅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奇’를 추구하며 生硬한 표현을 일삼고 彫琢에 치우친 것을 바로잡고자 한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3. 詩歌 創作論

시인이라면 대체로 누구나 시를 잘 짓고자 하는데, 중국에서도 오랜 옛날부터 詩歌에서 ‘工拙’의 문제를 따졌으며, 송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더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工拙’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sup>17)</sup> 그리고 구체적인 작법에 대해서도 唐代보다 더 깊은 논의가 행해졌다. 이러한 내용들은 葉夢得의 《石林詩話》에도 주요하게, 그리고 비교적 전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15) 吳文治, 앞의 책, 2726쪽. 詩本觸物寓興, 吟詠性情, 但能輸寫胸所欲言, 無有不佳. 世多役於組織雕鏤, 故言語雖工, 而淡然無味, 與人意了不相關.

16) 遼銘昕, 앞의 책, 104쪽. 而此老獨雍容閒肆, 出於自然, 略不見其用力處.

17) 宋代 詩學의 工拙論에 관해서는 李致洙의 <宋代 詩學에서 工拙論의 전개와 송대 문화적 특성 연구>(《中國語文學》 第62輯, 2013)를 참조.

## 1) 工妙

葉夢得은 우선 사람들이 모두 ‘工’을 추구하지만 과연 어떤 것이 ‘工’이라 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이 제대로 모른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葉夢得은 세상 사람들이 謝靈運 시의 ‘工’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오로지 ‘奇’의 측면에서만 그것을 구하려한다고 비판했다. 葉夢得이 생각건대 훌륭한 시는 인위적으로 생각을 짜내거나 말을 어렵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된다고 하였다. 또 단지 詩語만 工巧로운 것을 비판하고 用意가 深遠해야함을 주장하면서<sup>18)</sup> 전체적인 기상으로 ‘氣格’이나 ‘格力’에도 유의하여 兼해야 함을 중시했다.

葉夢得은 또 蘇軾의 <白鶴峰新居欲成, 夜過西鄰翟秀才>시의 “林行婆家初閉戶, 翟夫子舍尚留關”구를 평하면서 ‘拙’한 표현이 있지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말한 적이 있다.<sup>19)</sup> 여기서 주목할 점은 葉夢得이 ‘工’만을 고집하지 않고 ‘拙’도 반드시 피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송대에는 詩의 ‘工拙’ 문제에 대해 그 이전의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이전에는 오로지 ‘工’을 추구하며 ‘拙’은 피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으나, 송대에 들어서는 ‘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점차 盛해져 갔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巧’에서 출발하여 ‘拙’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고<sup>20)</sup>, 어떤 사람은 ‘工’과 ‘拙’의 并用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다.<sup>21)</sup> 위의 예문에서 葉夢得은 ‘拙’을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18) 遼銘昕, 앞의 책, 67쪽. 杜甫……漢、魏 以來로 詩人의 用意가 深遠하고 古風을 잃지 않은 이로는 오직 公만이 그러하며, 詩語만이 빼어난 것이 아니다.(杜子美……自漢、魏以來, 詩人用意深遠, 不失古風, 惟此公爲然, 不但語言之工也.)

19) 같은 책, 46쪽. 소식의 시에 “林 보살의 집은 막 문을 닫고, 翟 선생의 집은 아직 빗장을 걸지 않았네.”라고 하였다. … 처음 부분에 마음껏 펼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니, 어찌 줄렬한 것을 근심하리오.(蘇子瞻詩“林行婆家初閉戶, 翟夫子舍尚留關”. … 入頭不怕放行, 寧傷於拙也!)

20) 이를테면 羅大經은 “시를 짓는 데는 반드시 ‘巧’로써 나아가서 ‘拙’로써 이루어야 한다.(作詩必以巧進, 以拙成.)”(《鶴林玉露》 卷3. 吳文治, 앞의 책, 卷7, 7618-7619쪽.)라고 말했다.

21) 范溫은 《潛溪詩眼》에서 杜甫의 시를 평하면서 두보의 시는 ‘工拙’이 서로

葉夢得은 또 離合體를 논하면서 옛날 사람들이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지나쳐서 文字를 가지고 교묘함을 보이려 하였다고 비판했으며,<sup>22)</sup> 作詩에서 기교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주목하여, “詩語는 본래 교묘함의 운용이 너무 지나친 것을 꺼리지만, 감정을 표현하고 사물을 묘사함에 天然스럽게 工妙한 경우가 있으니, 비록 교묘함이 있더라도 彫琢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sup>23)</sup>고 주장했다. 여기서도 葉夢得은 시인들이 시를 지음에 기교를 너무 지나치게 부리는 것을 반대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葉夢得이 시의 훌륭한 표현으로 ‘工’만을 내세우지 않고 ‘妙’를 같이 거론했다는 점이다. 훌륭한 詩語의 표현과 관련하여 훗날 南宋의 姜夔는 《白石道人詩說》에서, “文은 文飾을 통하여 工巧로와지지만 文飾만으로는 妙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文飾을 버려두고는 妙도 없게 되니, 뛰어난 경지는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sup>24)</sup>라고 말한 바 있다. 즉 강기는 詩文을 막론하고 文飾을 통해서 工巧로와질 수 있지만 ‘妙’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工’은 인위적인 노력에 의한 기교의 차원이나, ‘妙’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이며, ‘工’은 시의 법도로 도달할 수 있으나 ‘妙’는 시의 법도 밖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修飾의 최종 목적은 ‘工’이 아니고 ‘妙’에 이르는 데에 있다. 이것은 송대 사람들이 주목했던 문제이며, 葉夢得이나 姜夔, 그리고 陳師道 등의 말을 통하여 송대의 詩話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문제 중의 하나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다.<sup>25)</sup>

반씩 섞여있다(老杜詩凡一編皆工拙相半)고 말했다.(같은 책, 卷2, 1250쪽.)

22) 遼銘昕, 앞의 책, 137쪽. 殆古人好奇之過, 欲以文字示其巧也.

23) 같은 책, 170쪽. 詩語固忌用巧太過, 然緣情體物, 自有天然工妙, 雖巧而不見刻削之痕.

24) 吳文治, 앞의 책, 卷7, 7549쪽. 文以文而工, 不以文而妙, 然舍文無妙, 勝處要自悟.

25) 姜夔의 위의 말은 일반론이면서 동시에 당시 詩壇에서 여전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江西詩派에 대한 비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곧, 강서 시파는 詩法을 논하기 좋아하였는데, 왕왕 字句 표면상의 ‘工’에 구애를 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강기는 시법에 구속당하지 않고, ‘工’에서 ‘妙’에 이르는 더 높은 경계를 제시하였다. 李致洙의 <姜夔 《白石道人詩說》의 詩法論>(《中國

## 2) 作法

葉夢得은 시를 짓는 방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作法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러한 作法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운용하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두 방면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 ① 구체적인 詩法

송대에는 좋은 시를 짓기 위해 詩法을 중시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葉夢得 역시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구체적인 시법과 관련하여 여러 방면에서 고찰했다.

## 가. 篇法(章法)

葉夢得은 한 편의 시를 지음에 있어서 우선 篇法에서 자유로운 운용을 주장했다.<sup>26)</sup> 그리고 全篇의 시를 잘 다듬지 않고 너무 많은 내용을 늘어놓는 것을 반대했다. 唐의 李邕와 蘇源明의 詩는 精鍊되지 못한 詩句가 너무 많아 과감하게 삭제하여 半만 取하자 비로소 훌륭해졌다고 평했다.<sup>27)</sup>

## 나. 句法

송대의 시인들은 句法을 중시했다. 특히 黃庭堅을 비롯한 江西詩派가

語文論叢》 第36輯, 2008) 120-121쪽 참조. 北宋의 陳師道도 ‘工’과 ‘妙’를 언급했으나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말했으며, 葉夢得처럼 두 자를 함께 붙여서 말하지는 않았다. 《後山詩話》: “杜甫를 배워 이루지 못하더라도 工巧로움은 잃지 않는다. 韓愈의 재주와 陶淵明의 妙함이 없이 그들의 시를 배우면 끝내는 白樂天이 될 따름이다.(學杜不成, 不失爲工, 無韓之才與陶之妙, 而學其詩, 終爲白樂天爾.)”(吳文治, 앞의 책, 卷2, 1017쪽.)

26) 遼銘昕, 앞의 책, 46쪽. 시는 작품 전체를 操縱함이 있으면 되며, 하나의 규율만 엮매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詩終篇有操縱, 不可拘用一律.)

27) 같은 책, 47쪽. 李邕와 蘇源明 같은 사람의 시에는 시원찮은 구절이 너무 많아, 내가 일찍이 철저히 삭제하여 단지 반만 취하였더니 비로소 훌륭하게 되었다.(如李邕、蘇源明詩中極多累句, 余嘗痛刊去, 僅各取其半, 方爲盡善.)

그러하며, 葉夢得도 句法의 측면에서 高荷의 시를 평하면서, 그가 杜甫에게서 배워 五言詩를 지었는데 句法을 상당히 터득했음을 지적했다.<sup>28)</sup>

#### 다. 字法

葉夢得은 우선 시인들이 시를 지을 때 한 글자일지라도 工巧하게 만들고자 애를 쓰는 법이란 점을 전제하고<sup>29)</sup>, 한 글자의 精練뿐만 아니라 두 글자인 疊字의 운용의 경우 더욱 잘 하기 어려움을 말했다.

시에서 雙字(疊字)를 쓰는 것은 극히 어려운데, 모름지기 七言과 五言에서 다섯 글자와 세 글자를 제외하고, 정신과 興致가 두 글자에 전부 나타나야 비로소 빼어나고 妙한 것이 된다.<sup>30)</sup>

葉夢得은 疊字의 운용은 모름지기 杜甫의 <登高> 중의 “無邊落木蕭蕭下, 不盡長江滾滾來”와 <灑澗> 중의 “江天漠漠鳥雙去, 風雨時時龍一吟”이 각각 ‘蕭蕭’와 ‘滾滾’, ‘漠漠’과 ‘時時’라는 疊字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표현력을 높인 것처럼 하여야 함을 강조했다.<sup>31)</sup>

#### 라. 對偶

對偶는 두 구가 서로 엄격한 구조를 지녀야 하는데, 葉夢得은 이와 관련하여 王安石의 말을 인용하고 그의 시는 이를 잘 지켰다고 높이 평했다.

28) 같은 책, 95쪽. 高荷는 荊南 사람으로, 杜甫 시를 공부하여 五言詩를 지었는데 句法을 제법 터득했다.(高荷, 荊南人, 學杜子美作五言, 頗得句法.)

29) 같은 책, 104쪽. 시인들이 한 글자일지라도 工巧롭도록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詩人以一字爲工, 世固知之.)

30) 같은 책, 42쪽. 詩下雙字極難, 須使七言五言之間除去五字三字外, 精神興致, 全見於兩言, 方爲工妙.

31) 같은 책, 42쪽. 요컨대 두보의 “끝없는 낙엽은 우수수 지고, 다함없는 장강은 도도히 흐른다.”와 “강 하늘 아득히 새 한 쌍 날아가고, 바람과 비 때때로 용이 울어댄다.” 등과 같아야 비로소 절묘하다 하겠다.(要之當令如老杜“無邊落木蕭蕭下, 不盡長江滾滾來”, 與“江天漠漠鳥雙去, 風雨時時龍一吟”等, 乃爲超絕.)

왕안석의 시는 詩法의 운용이 매우 엄격한데 특히 對偶에 정밀하였다. 일찍이 말하길, “漢人の 말을 사용했으면 오직 漢人の 말로 對句를 만들어야 한다. 만일 다른 朝代의 말이 끼어들면 서로 같은 부류가 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하나의 물줄기는 밭을 보호하며 푸르름을 갖고 흘러가고, 두 산은 문을 밀치며 푸르름을 보내온다.(一水護田將綠去, 兩山排闥送青來)’(<書湖陰先生壁>) 같은 類는 모두 漢人の 말이다.”라고 했다.<sup>32)</sup>

이를테면 왕안석의 시 “周顛의 집은 阿蘭若에 있고, 婁約의 몸은 窣堵波를 따라 돈다.(周顛宅在阿蘭若, 婁約身隨窣堵波)” 같은 것은 모두 梵語로 梵語와 對句를 이룬 것이다.<sup>33)</sup>

십몽득은 對偶를 함에 엄격하고 정밀하여야 함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對偶의 표현에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표현을 중시했다.

#### 마. 用事

葉夢得은 시에서 用事는 주요 수법 중의 하나이지만 억지로 해서는 안 되며, 자기의 博學을 자랑하기 위해 用事를 하는 것이 아니라, 用事를 하지 않으면 앓될 때 비로소 하여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sup>34)</sup> 그리고 用事の 구체적인 作法과 관련해서는 故事와 시 내용이 하나가 되고, 안배하거나 애써 모아놓은 흔적이 보이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用事を 잘못된 예를 들었다. 이를테면 蘇軾이 일찍이 孔稚珪의 鳴蛙 전고를 사용하여, “이미 쉬지 않고 울어대는 개구리를 보내 두 部署를 이루고, 다시 밝은 달을 맞아 세 사람이 되었네(已遣亂蛙成兩部, 更邀明月作三人)”라는 시를 지었는데, 이에 대해 葉夢得은 “成兩部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32) 같은 책, 118쪽. 荊公詩用法甚嚴, 尤精於對偶. 嘗云, 用漢人語, 止可以漢人語對, 若參以異代語, 便不相類. 如“一水護田將綠去, 兩山排闥送青來”之類, 皆漢人語也.

33) 阿蘭若是 梵語 aranya의 音譯으로, ‘寺院’, ‘절’의 의미이고, 窣堵波는 梵語 stūpa의 音譯으로 ‘佛塔’을 가리킨다.

34) 遂銘昕, 앞의 책, 56-57쪽. 詩之用事, 不可牽強, 必至於不得不用而後用之, 則事辭爲一, 莫見其安排闢湊之迹.

데, 역시 歇後語일 것이다. 그러므로 전고의 사용은 차라리 出處의 말과 조금 달라도 의미는 같은 것이 낫지, 출처의 말을 전부 인용하면서도 뜻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sup>35)</sup>”라고 하였다.

바. 聲律

葉夢得은 元祐 初에 御駕가 太學에 행차했을 때, 秦觀이 韻字를 ‘行’자에 맞추어 지은 시에 ‘하늘을 본받는 璧水는 멀리 의장대를 맞이하고, 달 빛이 비치는 深衣는 어지럽게 행동하지 않는다.<sup>36)</sup>(法天璧水遙迎仗, 映月深衣不亂行)’라고 한 것을 예로 들며, 이 구절은 사실 별다른 뜻 없이 韻을 맞추기 급급한 것이라 평하면서 押韻에서 주의할 점으로 警戒했다.<sup>37)</sup>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葉夢得은 作詩의 方法과 관련하여, 篇法(章法)에 서부터 句法, 字法, 그리고 對偶, 用事, 聲律 등의 주요 방면에 대해, 원리와 원칙, 피해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들 등에 대해 두루 언급하였다.

② 定法, 死法, 活法

시를 짓는 것과 관련하여 옛날부터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며 이것이 누적되어 후대에는 詩法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법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葉夢得은 나름대로 고찰을 하였다.

시는 體物語를 금하는데, 이것은 시를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대체로 말할 수 있다. 歐陽修가 汝陰 태수로 있을 때 일찍이 聚星堂에서 손님들과 함께 눈[雪]에 대해 시를 지으면서 이 규칙을 제시하면 왕왕 모두들 붓을 내려

35) 같은 책, 80쪽. 蘇子瞻嘗兩用孔稚圭鳴蛙事, ……至“已遣亂蛙成兩部, 更邀明月作三人”, 則“成兩部”不知爲何物, 亦是歇後. 故用事寧與出處語小異而意同, 不可盡牽出處語而意不顯也.

36) ‘璧水’는 ‘太學’을 가리키고, ‘深衣’는 옛날에 제후, 대부, 선비들이 평상시에 집에서 있었던 옷을 가리킨다.

37) 遼銘听, 앞의 책, 131쪽. 元祐初, 駕幸太學, 呂丞相微仲有詩, 中間押行字韻, 館閣諸人皆和. 秦學士觀一聯云: “法天璧水遙迎仗, 映月深衣不亂行.” 諸生聞之, 亦闐然. 觀爲人喜傲諛, 然此句實迫於趁韻, 未必有意也.

놓고 짓지를 못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정해진 법(定法)인데, 만일 시 짓기에 능한 사람이라면 자유로이 드나들 것인데 어찌 지장을 줄 수 있겠는가.<sup>38)</sup>

구양수는 體物語, 즉 어떤 사물을 묘사할 때, 일반적으로 그 外形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글자의 사용을 미리 금지했다. 그러나 葉夢得은 이런 定法에 꼭 매여서는 안 되고 자유롭게 변통할 것을 강조했다. 그래서 鄭谷은 시에서 體物語를 쓰지 않았지만 氣格이 鄙陋한 데 비해, 蘇軾과 杜甫는 體物語를 사용하였지만 오히려 훌륭한 시를 지었다. 그러므로 葉夢得은 ‘死法’을 반대하며 “지금 사람들은 많이들 이미 사용된 글자를 취해 모방해서 사용하지만, 전도되고 비좁고 누추하여 모두 죽은 법(死法)이 되고 만다.”<sup>39)</sup>는 점을 비판했다. 여기에서 葉夢得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해진 법(定法)이나 죽은 법(死法)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活法’을 언급한 것이다. 사실 송대의 시인들은 엄격한 詩法을 중시하였지만 동시에 시법에 너무 매이지 않아야함도 주목하였다. 黃庭堅은 일찍이 顏眞卿의 書法을 평하면서 “법도의 밖에 나오지만 결국은 그것과 합치된다.”<sup>40)</sup>고 하여 법도의 구속을 받지 않지만 법도에 어긋나지도 않음을 말하였고, 呂本中은 시를 논하면서 직접 ‘活法’이란 말을 사용하여 이것의 추구를 강조했다.<sup>41)</sup> 그런데 葉夢得이 그 이전에 이미 ‘活法’을 중시하였다는 것은

38) 같은 책, 198쪽. 詩禁體物語, 此學詩者類能言之也. 歐陽文忠公守汝陰, 嘗與客賦雪詩於聚星堂, 舉此令, 往往皆闕筆不能下. 然此亦定法, 若能者, 則出入縱橫, 何可拘礙.

39) 같은 책, 104-104쪽. 今人多取其已用字模放用之, 偃蹇狹陋, 盡成死法.

40) 出於繩墨之外, 而卒與之合哉.(黃庭堅, 《豫章黃先生文集》 卷28 <題顏魯公帖>. 李致洙의 <宋代 詩學의 展開에 있어서 「詩法」問題 研究>(《省谷論叢》 第36輯, 2005.8), 16쪽에서 재인용.)

41) 시를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活法을 알아야 한다. 이른바 活法이란, 규율이 갖추어져 있으면서 규율 밖에 나갈 수 있고, 변화를 헤아릴 수 없으면서도 또한 규율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學詩當識活法. 所謂活法者, 規矩具備, 而能出於規矩之外; 變化不測, 而亦不背於規矩也.)(劉克莊, 《後村先生大全集》 卷95 <江西詩派序>. 吳文治, 앞의 책, 卷3, 2907쪽.)

높이 평가할 만하다. 江西詩派의 末流가 지나치게 법도를 따지고 換骨奪胎, 點鐵成金 등의 기법에 빠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4. 詩歌 批評論

葉夢得의 《石林詩話》에는 시의 본질과 표현, 그리고 창작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역대의 시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부분도 있다. 여기서는 杜甫를 논한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것은 葉夢得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인이 바로 杜甫인지라 作詩에서 본받아야 할 典範으로 삼은 것이다. 또 宋代의 시인들에 대해서도 평을 하였는데, 이것을 통하여 시단의 대표적인 작가에 대한 葉夢得의 평가를 엿볼 수 있다.

##### 1) 杜甫論

송대는 두보 시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두보 시를 열심히 학습한 시기였다. 葉夢得도 두보의 시에 대해 여러 곳에서 논평을 하였는데, 앞에서 葉夢得의 시론을 논하면서 이미 杜甫 시 관련 평어를 일부 살펴본 바 있지만, 아래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葉夢得은 禪宗 雲門宗의 ‘三種語’를 가지고 두보 시를 논했다.

禪宗에서는 雲門宗에 세 종류의 말이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물결을 따라 뒤쫓아간다(隨波逐浪)”는 말로서, 사물에 따라 임기응변하며 낚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두 번째는 “온갖 흐름을 끊어 버린다(截斷眾流)”는 말로서, 말 밖으로 벗어나서 감정과 지식으로는 이를 수 없다는 말이다. 세 번째는 “하늘과 땅을 감싸 뒤덮는다(函蓋乾坤)”는 말로서, 모든 것이 다 합치되어 조금의 틈도 없다는 말이다.<sup>42)</sup>

42) 遼銘昕, 앞의 책, 18쪽. 禪宗論雲門有三種語: 其一爲隨波逐浪句, 謂隨物應機, 不主故常; 其二爲截斷眾流句, 謂超出言外, 非情識所到; 其三爲函蓋乾坤句, 謂泯然皆契, 無間可伺.

葉夢得은 이른바 ‘雲門三句’를 가지고 杜甫 시의 다양한 風貌와 境界를 비유하였다. “물결에 뜬 줄풀은 검은 구름이 잠긴 듯하고, 이슬이 차가운 연밭엔 붉은 가루 떨어지네.(波漂菰米沉雲黑, 露冷蓮房墜粉紅)”(<秋興>)라는 구절은 ‘하늘과 땅을 감싸 뒤덮는다(函蓋乾坤)’는 말의 境界와 같고, “꽃 지고 아지랑이 날리는 한낮은 조용하고, 비둘기 울고 어린 제비 나는 봄날은 깊어간다.(落花遊絲白日靜, 鳴鳩乳燕青春深)”(<題省中院壁>)는 구절은 ‘물결을 따라 뒤쫓아간다(隨波逐浪)’는 말이며, “평생 외진 곳에 살며 사립문도 멀고, 5월 되니 강물 깊어지고 초당도 서늘하네.(百年地僻柴門迥, 五月江深草閣寒)”(<嚴公仲夏枉駕草堂兼攜酒饌>)라는 구절은 ‘온갖 흐름을 끊어 버린다(截斷眾流)’는 말의 경지와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송대에는 禪宗이 盛하여 文士와 僧侶들의 관계가 밀접하였고 시단에는 시인들이 ‘以禪喻詩’하는 풍조가 일어나고 있었다. 葉夢得이 살았던 北宋 때에는 禪宗의 여러 종파 중에서도 雲門宗과 臨濟宗의 세력이 旺盛하였으며, 葉夢得은 居住 지역의 특성상 雲門宗과 가까웠다. 위에서 본 글은 바로 이러한 ‘以禪喻詩’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특히 杜甫의 시를 논하면서 禪語로 비유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② 葉夢得은 두보가 當時의 일에 感興을 일으켜 이를 시에 나타내었는데, 漢과 魏나라 以來로 用意가 深遠하며 古風을 잃지 않은 사람은 오직 두보뿐이라고 極讚하면서, 단지 詩語만 工巧로운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sup>43)</sup> 또 王安石이 일찍이 두보의 ‘주렴 걷어 올리자 자던 백로가 일어나고, 약을 등글게 만들 때 꾀꼬리가 노래한다.(鉤簾宿鷺起, 丸藥流鶯囀)’는 구절을 평하여 用意가 高妙하여 五言詩의 모범이라고 찬탄한 말을 인용하면서, 感興 寄託이 深遠하고 高妙한 것을 두보 시의 큰 특색으로 들었다.<sup>44)</sup>

43) 같은 책, 67쪽. 杜子美<病柏>、<病橘>、<枯櫟>、<枯楠>四詩, 皆興當時事. <病柏>當爲明皇作, 與<杜鵑行>同意. <枯櫟>比民之殘困, 則其篇中自言矣. <枯楠>云: “猶含棟梁具, 無復霄漢志”. 當爲房次律之徒作. 惟<病橘>始言“惜哉結實小, 酸澀如棠梨”, 末以比荔枝勞民, 疑若指近倖之不得志者. 自漢、魏以來, 詩人用意深遠, 不失古風, 惟此公爲然, 不但語言之工也.

44) 같은 책, 16쪽. 蔡天啟云: “荊公每稱老杜‘鉤簾宿鷺起, 丸藥流鶯囀’之句, 以爲用

③ 篇法(章法)에 있어서 두보는 長篇詩도 잘 지어, “<述懷>, <北征> 같은 작품들은 筆力을 극진하게 다 펼쳐, 마치 司馬遷의 《史記》의 本紀, 列傳과 같으니, 이러한 시들은 진실로 古今의 絶唱이다.”<sup>45)</sup>고 평했다.

④ 句法에 있어서, 두보의 7언시는 氣象이 雄渾하고, 句中에 힘이 있으며, 文辭가 완곡하고 어조가 느리면서 言外之意를 잃지 않는다고 높이 평가했다.<sup>46)</sup>

⑤ 두보의 시는 字法에 있어서 變化가 많으며, 凡常한 글자도 잘 운용하였다고 평했다.<sup>47)</sup> 예를 들어 “강산에 巴蜀이 있고, 건물은 齊梁으로부터이다.(江山有巴蜀, 棟宇自齊梁)”는 구절은 遠近 數千里와 上下 數百年이 단지 ‘有’와 ‘自’ 두 글자 안에 들어있어, 산천을 삼키는 氣와 고금을 껴안은 회포가 언어 밖에 다 드러난다고 평하면서, 이런 표현을 두보는 조금도 애쓴 흔적 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내었다고 찬사를 보냈다.<sup>48)</sup>

⑥ 두보의 시는 疊字에 뛰어나다고 평했다.<sup>49)</sup>

⑦ 詩人에 따라서는 어떤 사물을 묘사할 때, 일반적으로 그 外形을 묘사하는 데 많이 쓰이는 글자의 사용을 미리 금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보는 이런 것에 구속을 받지 않아, “暗度南樓月, 寒生北渚雲(남쪽 누각의 달

意高妙, 五字之模楷.”

45) 같은 책, 47쪽. 至老杜<述懷>、<北征>諸篇, 窮極筆力, 如太史公紀傳, 此固古今絶唱.

46) 같은 책, 172쪽. 七言難於氣象雄渾, 句中有力, 而紆餘不失言外之意.

47) 같은 책, 104쪽. 惟老杜變化開闔, 出奇無窮, 殆不可以形迹捕詰. ……今人多取其已用字模放用之, 偃蹇狹陋, 盡成死法. 不知意與境會, 言中其節, 凡字皆可用也.

48) 같은 책, 104쪽. 如“江山有巴蜀, 棟宇自齊梁”, 遠近數千里, 上下數百年, 只在“有”與“自”兩字間, 而吞納山川之氣, 俯仰古今之懷, 皆見於言外. … 此皆工妙至到, 人力不可及, 而此老獨雍容閒肆, 出於自然, 略不見其用力處.

49) 같은 책, 42쪽. 시에서 雙字(疊字)를 쓰는 것은 극히 어렵다. … 요컨대 두보의 “끝없는 낙엽은 우수수 지고, 다함없는 장강은 도도히 흐른다.”와 “강 하늘 아득히 새 한 쌍 날아가고, 바람과 비 때때로 용이 울어댄다.” 등과 같아야 비로소 절묘하다 하겠다.(詩下雙字極難 … 要之當令如老杜“無邊落木蕭蕭下, 不盡長江滾滾來”, 與“江天漠漠鳥雙去, 風雨時時龍一吟”等, 乃爲超絶.)

은 어두운 가운데 지나가고, 북쪽 물가의 구름은 추위 속에 일어나네.)” (<舟中夜雪, 有懷廬十四侍御弟>)라고 하여 ‘雲’이나 ‘月’字를 피하지 않아 定法에 매이지 않았다고 평했다.<sup>50)</sup>

③ 두보의 시는 對偶가 지극히 嚴整하다고 평했다.<sup>51)</sup>

이상에서 보듯이 葉夢得은 시의 내용과 형식, 표현을 비롯하여 여러 면에서 杜甫의 시를 평했다. 송대의 시인들은 두보의 시를 최고로 높이고 추앙하였다. 葉夢得의 시화 속에서도 이런 점이 잘 나타나 있다. 송대에는 두보와 그의 시에 대한 담론이 일찍이 없었던 상황을 이루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忠君憂國說, 詩史說, 集大成說을 비롯하여 두보시의 형식 표현상의 특색을 높이는 견해 등이 존재하였다. 葉夢得의 杜甫論의 특색은 물론 작품에 표현된 작가의 感興 寄託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지만, 두보 시의 형식 표현상의 성취에 대해서 어느 다른 시화에 못지않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葉夢得은 두보의 시를 무조건 전부 다 훌륭하다고 칭송하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長篇詩는 짓기가 가장 어려운데, 두보 시 중에는 筆力을 극도로 발휘한 좋은 시도 있지만, <八哀> 여덟 篇과 같이 지나치게 편폭이 큰 시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sup>52)</sup>

## 2) 宋代詩人論

葉夢得은 北宋의 여러 시인 중 특히 歐陽修와 王安石, 蘇軾, 그리고 黃庭堅 등, 송시의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시인들의 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평을 가했다.

50) 같은 책, 198쪽. 詩禁體物語, …… 然此亦定法, 若能者, 則出入縱橫, 何可拘礙. …… 杜子美“暗度南樓月, 寒生北渚雲”, 初不避雲月字.

51) 吳文治, 앞의 책, 卷7, 7649쪽. 羅大經, <鶴林玉露>: 葉石林云: “杜工部詩對偶至嚴.”

52) 遼銘昕, 앞의 책, 47쪽. 장편시가 가장 어려워, … 그러나 <八哀> 여덟 수는 … 이 시의 병폐는 작품의 분량이 너무 많은 데에 있다.(長篇最難, … 然<八哀>八篇, … 其病蓋傷於多也.)

## ① 歐陽修

葉夢得은 歐陽修의 宋詩 역사에서의 공헌을 西崑體의 결합을 바로잡은 것으로 보았고, 그의 시의 특색을 ‘氣格’으로 파악했다.<sup>53)</sup> 그리고 歐陽修의 <崇徽公主手痕>詩를 例로 들며, “抑揚과 曲折이 일곱 자 안에 드러나고 美麗하고 雄渾하며 글자마다 對를 이루어 西崑體의 뛰어난 작품도 견주기 쉽지 않다.(抑揚曲折, 發見于七字之中, 婉麗雄勝, 字字不失相對, 雖“昆體”之工者, 亦未易比)”고 평했다. 그러나 歐陽修의 시를 배우는 사람들 중에는 시에 余韻이 없고 含蓄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구양수 시의 좋은 점을 제대로 학습한 것이 아니라고 질책했다.<sup>54)</sup>

## ② 王安石

葉夢得은 王安石의 시가 煉字, 對偶, 그리고 用事 등에서 모두 精切, 工整한 특색을 높이 평가하여, “王荊公의 晚年詩는 詩律이 더욱 精嚴하고, 詩語를 만들고 글자를 運用함에 있어서는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틈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뜻이 말과 결합하고, 말이 뜻을 따라 구사되어, 전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牽強附會하고 늘어놓는 곳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sup>55)</sup>”고 하였다. 葉夢得은 王安石의 시가 晩年에야 深婉하고 급박하지 않은 정취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높이 평가한 반면, 젊었을 때는 意氣를 자부하며 그대로 드러내어 含蓄적이지 못하였다고 평했다.<sup>56)</sup>

53) 같은 책, 20쪽. 歐陽文忠公(歐陽修)의 시는 처음으로 西崑體를 바로잡으면서 오로지 氣格을 위주로 하였다.(歐陽文忠公詩始矯昆體, 專以氣格爲主).

54) 같은 책, 20쪽. 而學之者往往遂失於快直, 傾困倒廩, 無復餘地. 然公詩好處豈專在此?

55) 같은 책, 12-13쪽. 王荊公晩年詩律尤精嚴, 造語用字, 間不容髮. 然意與言會, 言隨意遣, 渾然天成, 殆不見有牽率排比處.

56) 같은 책, 93쪽. 王荊公少以意氣自許, 故詩語惟其所向, 不復更爲涵蓄... 晩年始盡深婉不迫之趣.

## ③ 蘇軾

葉夢得은 蘇軾의 시를 평하면서 긍정과 비판의 입장을 모두 보여주었다. 우선 소식의 ‘豈意日斜庚子後, 忽驚歲在巳辰年.(날이 庚子 뒤에 기울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해가 巳辰年이라 문득 놀라네.)’(<孔長源挽詞二首>)에 대해, 對偶를 만들려는 인위적인 흔적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높이 평했다.<sup>57)</sup> 반면에, 歇後語의 운용에서 잘못된 사례를 지적하면서, 소식의 시에 ‘소를 사는 것은 단지 스스로三尺을 버리면 되나, 쥐를 쏘는 것은 어찌 수고로이 六鈞<sup>58)</sup>을 당기리오(買牛但自捐三尺, 射鼠何勞挽六鈞)’라는 구절이 있는데, ‘六鈞’은 ‘弓’자를 버리고 쓰지 않아도 되지만 ‘三尺’은 ‘劍’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sup>59)</sup>”고 하였다.<sup>60)</sup>

## ④ 黃庭堅

葉夢得은 黃庭堅이奇異한 표현을 즐겨 찾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만은 않고 현실 생활에서 景物과 접촉하여 일어나는 감정을 修飾 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낼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葉夢得은 黃庭堅의 ‘奪胎換骨’, ‘點鐵成金’이란 作詩法을 추종하는 江西詩派 末流가 古人의 시를 모방하고 古人의 법도에 매이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다. 葉夢得은 또 黃庭堅이 韻을 맞추기 위해 原典의 말을 잘못 倒置시킨 例를 지적하며, “黃庭堅이 ‘국을 마시는 것은 사슴을 놓아주는 것만 못하니, 樂羊은 결국 巴西에 부끄럽다.(啜羹不如放麋, 樂羊終愧巴西)’라고 했는데, ‘巴西’는 본디 ‘西巴’

57) 같은 책, 57쪽. 蘇子瞻嘗爲人作挽詩云: “豈意日斜庚子後, 忽驚歲在巳辰年.” 此乃天生作對, 不假人力. 遂銘昕의 책에는 ‘忽驚歲在巳辰年’이라 되어 있으나 ‘巳辰’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

58) 六鈞: 1鈞은 30斤이며, ‘六鈞’은 활줄을 당길 때에 매우 힘이 많이 드는 強弓을 가리킨다.

59) 遂銘昕, 앞의 책, 76쪽. 蘇子瞻詩有“買牛但自捐三尺, 射鼠何勞挽六鈞”, … ‘六鈞’可去‘弓’字, ‘三尺’不可去‘劍’字.

60) ‘三尺’은 ‘劍’의 代稱으로도 쓰이므로 葉夢得의 지적이 반드시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며 《韓非子》에 나온다. 韻을 얻는 데만 탐닉하여 미처 살피지 못하였다.<sup>61)</sup>”라고 평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葉夢得은 송대의 大家들의 시를 평하면서 무조건 칭송만 하지 않고, 자신의 시학 관점에 비추어 나름의 견해를 제시했다. 葉夢得은 이외에도 당시 詩壇의 폐단을 목도하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금 사람들은 이미 사용된 글자를 취해 모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顛倒되고 비좁고 누추하여 모두 죽은 법(死法)이 되고 만다.”<sup>62)</sup>고 叱咤했고, 지금 사람들은 시인의 뜻이 경물과 만나서 말이 節度에 맞으면 凡常한 글자도 모두 쓸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비판했으며<sup>63)</sup>, 근세에 시를 배우는 僧侶들이 많지만 그저 士大夫들의 시를 모방이나 한다고 慨嘆했다.<sup>64)</sup>

### Ⅲ. 나가는 말

본고는 葉夢得의 《石林詩話》의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면서, 송대 詩學의 전개에 있어서 《石林詩話》가 갖는 특색 및 의의 등을 살피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였다. 위에서 일련의 고찰을 거친 결과, 《石林詩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宋代의 詩話는 初期에는 詩를 논하면서 詩의 本事와 詩人에 關連된 逸話가 많던 데서 後期로 갈수록 論詩의 理論性이 強化되는 變化를 보이는데, 《石林詩話》는 바로 이 轉變의 過渡期 詩話로서 特色을 가지고 있다. 葉夢得은 이 책에서 비교적 全面的이고 體系的으로 詩人과 詩에 관한 自身の 見解를 提示하였는데, 《石林詩話》의 主要 詩論은 대체로 ①

61) 같은 책, 99쪽. 魯直‘啜羹不如放燗, 樂羊終愧巴西’, ‘巴西’本是‘西巴’, 見《韓非子》, 蓋貪於得韻, 亦不暇省爾.

62) 같은 책, 104-104쪽. 今人多取其已用字模放用之, 偃蹇狹陋, 盡成死法.

63) 같은 책, 104쪽. 今人……不知意與境會, 言中其節, 凡字皆可用也.

64) 같은 책, 135쪽. 近世僧學詩者極多, 皆無超然自得之氣, 往往反拾掇摹倣士大夫所殘棄.

詩歌 本質論, ② 詩歌 表現論, ③ 詩歌 作法論, 그리고 ④ 詩歌 批評論 등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石林詩話》는 전체적으로 볼 적에 여전히 시인이나 시 관련 逸話を 隨筆式으로 적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詩 관련 理論에 대한 탐구가 강해지고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 비록 아직은 계통적이고 完整한 이론을 제시함에 이르지 않는 않지만 종합하여 정리하면 나름대로의 체계성이 두드러진다.

둘째, 宋代에는 詩法을 따지고 추구하는 풍조가 盛하였는데, 葉夢得은 《石林詩話》에서 景物들과 직접 접촉하며 詩情을 나타냄을 강조하는 詩歌 本質論과 시인의 뜻과 詩語가 잘 어우러지고 함축적이고 자연스러움을 중시하는 詩歌 表現論을 주장함과 동시에, 더 많은 편폭을 통하여 詩法의 各 方面에 대해 比較的 全面的으로 論議를 展開했다. 篇法(章法) 문제에 서부터 시작하여 句法, 字法, 對偶, 用事, 그리고 聲律 등, 詩法의 주요 사항들을 두루 다루면서, 詩法의 성격과 詩法 運用上的 주의할 점 등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진정한 ‘工’이란 어떤 것이며, ‘工’과 ‘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경지로서 ‘工妙’를 제시했으며, 詩法을 중시하되 ‘定法’에 매이지 말 것을 주장하고 ‘死法’을 반대하여, ‘詩法’을 제대로 잘 운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셋째, 宋代에는 많은 사람들이 杜甫와 그의 詩를 매우 推仰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多樣的 評價가 나왔는데, 葉夢得도 《石林詩話》에서 상당한 편폭을 통해 두보 시의 특색에 대해 논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杜甫 詩의 詩法 問題에 焦點을 맞추어 설득력 있는 분석을 제시하면서 그의 시를 아주 높이 평가했다. 송대의 시인들은 作詩에서 詩法을 중시하였고, 學詩에서는 杜甫의 시를 아주 높였는데, 葉夢得의 杜甫論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결합하였다는 데에 특색이 있다. 즉 杜甫 詩를 통하여 올바른 詩法의 典型을 제시하였다.

넷째, 葉夢得은 歐陽修부터 王安石, 蘇軾, 그리고 黃庭堅으로 이어지는 北宋 中, 後期 詩壇의 代表 시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시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이들의 시를 비판적 입장에서 평가했다. 또, 당시 시단의 폐

단을 지적함으로써 시인들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다섯째, 葉夢得은 이 외에도 詩味를 重視하고, 禪語로 詩를 論하였다. 이상의 몇 가지 점을 통하여 葉夢得의 《石林詩話》의 特色을 살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宋代 詩學의 趨向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葉夢得의 《石林詩話》를 宋代의 代表的인 詩話의 하나로 꼽아도 크게 지나치지 않다.

### <References>

1. Gu Yisheng ·Jiang Fan ·Liu Mingjin, *The criticizing history of Song, Jin, Yuan Dynasty(the second Volume)*, Shanghai Ancient House, 1996.
2. Guo Shaoyu, *Studying poetry words of Song Dynasty*, The sea of studying Press, 1980.
3. Huang Baohua ·Wen Shihua, *History of Chinese Poetry(the volume of Song, Jin, Yuan Dynasties)*, Lu Jiang Press, 2002.
4. Min Zeping, Ye Mengde and Shilin Poetry Talks, *Journal of Jiaozuo Teachers College*, Vol.19, No.4, 2003.
5. Lee Chi-soo, Discussion of Poetry Law of Jiang Kui<Poem saying of BaiShiDaoRen>, *Chinese Forum*, No.36, 2008.
6. Lee Chi-soo, Discussion of Poetry of WeiTai <Poem saying of living in seclusion next to Han Dynasty> and the trend of Northern Song Dynasty Poetry, *Chinese Forum*, No.40, 2009.
7. Lee Chi-soo, The Development of GongZhuoLun in Poetry studying of Song Dynasty and studying characteristics of the Song Dynasty Culture, *The Chinese Literature*, No.62, 2013.
8. Lee Chi-soo, Laws of Poetry studying according to Poetry studying of Song Dynasty, *Sheng Gu's Forum*, No.36, 2008.

9. Lu Mingxin, *Explantory Notes of Shilin Poetry Talks*, Peolpe's Literature Publishing Press, 2011.
10. Pan Shuxian, *The study of Ye Mengde*, Ba Shu Book House, 2007.
11. Song Yong-zhun·Oh Tae-suk·Lee Chi-soo, *History of Song Dynasty*, YiLe, 2004.
12. Wu Wenzhi, The whole series of Song Poetry, *Fenghuang Press*, 2006.
13. Wu Zhongsheng, The study of Du Fu criticizing history, *China Social Sciences Publishing House*, 2012.

<참고문헌>

1. 顧易生·蔣凡·劉明今, 《宋金元文學批評史》(下), 上海古籍出版社, 1996.
2. 郭紹虞, 《宋詩話考》, 學海出版社, 1980.
3. 黃寶華·文師華, 《中國詩學史》(宋金元卷), 鷺江出版社, 2002.
4. 閔澤平, <葉夢得和《石林詩話》>, 《焦作師範高等專科學院學報》第19卷 第4期, 2003.
5. 李致洙, <姜夔《白石道人詩說》의 詩法論>, 《中國語文論叢》第36輯, 2008.
6. 李致洙, <魏泰《臨漢隱居詩話》의 詩論과 北宋 詩學의 趨向>, 《中國語文論叢》第40輯, 2009.
7. 李致洙, <宋代 詩學에서 工拙論의 展開와 宋代 文化的 特性 研究>, 《中國語文學》第62輯, 2013.
8. 李致洙, <宋代 詩學의 展開에 있어서 「詩法」 問題 研究>, 《省谷論叢》第36輯, 2005.
9. 遼銘昕, 《石林詩話校注》, 人民文學出版社, 2011.
10. 潘殊閑, 《葉夢得研究》, 巴蜀書社, 2007.

11. 宋龍準·吳台錫·李致洙, 《宋詩史》, 亦樂, 2004.
12. 吳文治, 《宋詩話全編》, 鳳凰出版社, 2006.
13. 吳中勝, 《杜甫批評史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 <Abstract>

Ye Mengde's *Shilin Poetry Talks*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 works of the Song Dynasty. His poetry achievements were mainly reflected in several respects. Firstly, during the early stage of the poetry talks of the Song Dynasty, the stories about poetry and some amusing anecdotes related to the poets were also recorded while discussing poetry, but the poetry talks in the later period were more theoretical than before, *Shilin Poetry Talks* was typical of the transition period with such features. In this book, Ye Mengde put forward his views on the poetry comprehensively, and his poetry theory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essentialism, expressionism, the theory of creation and the criticism theory of the poetry. Secondly, there were a lot of comments on the poetry rules which were prevalent in the Song Dynasty, Ye Mengde had covered nearly all aspects of the main questions in his book. Thirdly, in the Song Dynasty, Du Fu and his poems won undivided admiration and multi-evaluation, Ye Mengde had made many comments on Du Fu, especially on the characteristics of poetry rules from different angles, and he had shown an excellent model of writing poet for the scholars at that time. Fourthly, Ye Mengde had shown a type of proper approach of writing poems for the scholars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poets in the middle and later period of the Northern Song Dynasty, and he wanted to correct the faults at the time. In addition, Ye Mengde paid

attention to “the poetic flavor” and used to talk about the poems with Buddhism which made us see the tendency of poetics of Song Dynasty.

Key Words : 葉夢得(Ye Mengde)、石林詩話(*Shilin Poetry Talks*)、  
詩論(the Poetic Theory)、宋代(Song Dynasty)